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미래에너지 개발사업 집중 투자 ... 2009년까지 750kW 풍력발전 설치

강원도는 2007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필요한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해 미래에너지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10월17일 발표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3월 강원도가 산업자원부에 신청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63억원이 최근 확정됐으며, 지방비 30억원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09년까지 대관령지역에 750kW급 국산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1차로 2007년 국비 21억원과 도비 9억원을 들여 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춘천시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에 1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시설물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한편 혐오시설로 인식된 하수처리장을 태양에너지 체험 장소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속초 수질환경사업소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시설을 설치해 남는 전력은 판매하며, 시민들에게 열병합발전시설 홍보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화천군 청사 및 문화예술회관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지역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대체에너지를 통한 일정량의 에너지를 생산 보급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인 원주 예찬어린이집에는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강원도는 이밖에 인제 DMZ 평화동산 전시관에 지열시스템 및 태양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해 시설 연료비를 절감하고, 시설 연수자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미 2005년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했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17>